

Meritz 통신서비스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정지수
02. 6454-4863
jisoo.jeong@meritz.co.kr

2021.5.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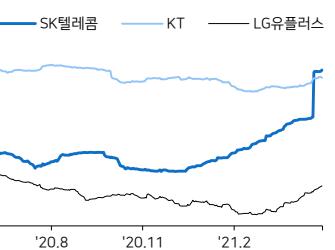


1 주가 현황

	수익률(%)				PER(x)		PBR(x)		배당수익률(%)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
	1W	1M	3M	6M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KOSPI	1.1	-0.9	5.4	20.6	12.5	12.5	1.2	1.2	1.6	1.6	
통신업종	-1.2	1.6	24.7	31.7	10.2	10.2	0.8	0.8	3.6	3.6	
SK텔레콤	-2.4	-1.6	25.3	34.0	10.7	8.4	0.9	0.9	3.4	3.5	
KT	0.3	5.6	18.3	31.5	9.7	8.7	0.5	0.5	4.7	5.0	
LG유플러스	-1.0	10.6	20.1	27.9	9.4	8.2	0.8	0.8	3.4	3.7	
AT&T	-6.9	-4.4	2.8	4.9	9.4	9.5	1.2	1.2	7.0	6.8	
Verizon	-3.0	-0.7	-0.2	-5.5	11.2	11.0	3.0	2.7	4.4	4.5	
T-Mobile	-3.9	2.0	14.1	6.4	58.2	39.8	2.5	2.4	0.0	0.0	
NTT	-0.4	3.2	2.7	16.2	11.6	9.5	1.3	1.2	3.6	3.9	
KDDI	4.9	11.1	9.3	21.8	13.0	12.8	1.8	1.7	3.3	3.4	
Softbank	-0.3	-15.0	-19.2	26.0	4.2	13.3	1.9	1.0	0.5	0.5	
China Mobile	3.0	-5.0	-10.8	7.2	7.6	7.2	0.7	0.7	6.9	7.2	
China Unicom	-4.3	-6.8	-19.8	-10.9	7.5	6.7	0.3	0.3	5.4	6.2	
China Telecom	-1.9	-4.9	-4.9	6.2	7.7	7.3	0.5	0.4	5.3	5.6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SKT 44.9% (+0.2%p WoW, +5.7%p MoM)

KT 44.0% (+0.1%p WoW, +1.0%p MoM)

LGU+ 32.4% (+0.4%p WoW, +1.7%p MoM)

통신3사, 외국인 지분율 순매수 5주 연속 기록

2 업종 코멘트

전자 통합

5월 셋째주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KOSPI 대비 -2.3%p 수익률 기록하며 Underperform 주가는 소폭 하락했으나, 국내 통신 3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상승세는 지속 AT&T는 디스커버리와의 합병 소식에도 불구하고 배당 촉소 발표로 인해 주가 하락 국내 기관은 KT, SK텔레콤, LGU+ 순매도. 외국인은 KT, SK텔레콤, LGU+ 순매수

금주 전망

금주는 특별한 이벤트가 부재 국내 통신주의 본업 회복 및 자회사 실적 개선에 따른 DPS 상향으로 배당 매력 부각 전망 외국인이 수급을 주도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외인 수급에 여유가 있는 LG유플러스 추천 삼성전자 벤류체인 업체들의 미주향 통신장비 공급은 2Q21부터 본격화. Top Pick은 서진시스템

통신업종 캘린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6	17	18	19	20	21	22 KT CEO 간담회
23	24	25	26	27	28	29

3 주간 뉴스

▶ 한-미, 6G 차세대 네트워크 35억달러 공동투자

(전자신문)

-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G · 6G 이동통신 분야에 35억달러 규모 공동투자 결의
 - 6G를 포함해 오픈랜, 인공지능(AI), 데이터, 양자 등 차세대 정보통신기술 대표 분야에서도 협력 약속
 - 또한 양국은 한국의 아르테미스 약정 체결 결정에 따라 촉진되는 우주 탐사에 대한 협력을 확대
- ⇒ 35억 달러는 각국이 추진하는 규모를 반영한 금액이지만 내용적 측면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될 전망
- ⇒ 향후 COVID-19 등으로 지연된 5G 기지국 설치 및 5G 커버리지 구축의 빠른 정상화 기대.

▶ AT&T-디스커버리, 49조에 합병… 넷플릭스 대형마릴까

(조선비즈)

- 워너미디어를 소유한 AT&T와 디스커버리가 총 430억달러(약 49조원) 규모의 합병 계약을 체결
 - AT&T는 워너미디어를 운영하는 미디어 사업부를 분사해 디스커버리와 합작회사를 세우는 방안 추진
 - AT&T는 최근 HBO를 통해 OTT 서비스 'HBO 맥스'를 출시했으며, 미국 내 가입자는 4,400만명
- ⇒ 합병 소식에도 불구하고 AT&T와 디스커버리의 초기 상승분을 반납하며 각각 2.7%, 5% 하락 마감
- ⇒ 이는 같이 발표한 배당 삭감이 주 원인. 이번 발표로 AT&T의 연배당 수익률은 4%대로 떨어질 전망

▶ KT · SKB · LGU+ "대형 콘텐츠 사업자 사용료 인상 수준 과도"

(아이뉴스24)

-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대형 콘텐츠 사업자를 상대로 지나친 가격 인상 멈춰야 한다고 촉구
 - 이는 사실상 CJ ENM을 겨냥, 콘텐츠 가격 협상 과정에서 의견 충돌을 빚자 성명서를 통해 입장 표명
 - 또한 자체 OTT인 티빙에만 저렴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공급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라고 주장
- ⇒ 이에 대해 CJ ENM은 IPTV 프로그램 사용료 25% 이상이 제작 원가 대비 합리적 제언이라고 주장
- ⇒ 향후 방송 콘텐츠 및 자체 동영상서비스(OTT)를 둘러싼 통신 3사와 CJ ENM의 갈등 심화 전망

▶ KT, 현대미디어 인수 추진…KT스카이라이프는 현대HCN만

(전자신문)

- KT스카이라이프, 과기정통부와 공정위에 현대미디어 인수 주체 변경 가능성에 대해 설명
 - KT그룹은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과 현대미디어를 모두 인수하려던 기존 계획에서
 - KT가 현대미디어,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 인수하는 방향으로 선회
- ⇒ KT의 현대미디어 인수 추진은 KT그룹의 미래 전략인 미디어 · 콘텐츠 사업구조 재편의 일환
- ⇒ PP 자회사 확보를 통해 KT스튜디오오지니를 중심으로 미디어 · 콘텐츠 사업 구조를 완성할 계획

▶ 과기정통부, C-ITS 주파수 이용 계획 수립 착수

(전자신문)

- 과기정통부, 국토부로부터 5.9GHz 대역 7개 채널 주파수 이용 계획을 전달받고 계획 수립 착수
 - C-ITS는 5.9GHz 대역 70MHz 폭을 7개 채널로 사용 중. 국토부는 4개의 채널은 웨이브(DSRC)로
 - 나머지 3개 채널은 이동통신기반-차량 · 사물통신(C-V2X) 실증 대역으로 활용할 계획 전달
- ⇒ C-ITS 실증 일정과 C-V2X 기술 개발 주기 감안하면 연내 주파수 이용 계획 확정 유력
- ⇒ 5.9GHz 대역 관련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결정이 과기정통부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

▶ 티맵모빌리티, 화물 주선 시장 진출…'와이엘피' 인수

(아이뉴스24)

- SKT의 모빌리티 자회사 티맵모빌리티, 화물운송 중개 기업 와이엘피를 100% 자회사로 편입
 - 티맵모빌리티는 현금 556억원으로 지분 70.4% 확보, 나머지 지분은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취득
 - 신규 투자를 통해 화물 주선 시장에 진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 및 강화한다는 전략
- ⇒ 와이엘피의 매출액은 227억원으로 설립 첫 해 대비 57배 증가했으나 25억원의 영업손실 기록
- ⇒ 티맵모빌리티는 확보해 온 DT, AI 기술을 접목해 화물 주선 시장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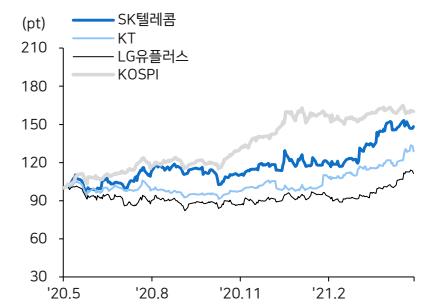
4 주요 지표

(집계달력)	종가 (통화)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BITDA		EV/EBITDA (배)		ROE (%)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한국	SK텔레콤	309,500	19.8	17.4	18.0	1.4	1.5	2.0	2.4	5.1	5.2	5.7	5.5	8.9	10.4
	KT	31,100	7.2	21.7	22.3	1.2	1.3	0.7	0.8	4.4	4.5	2.9	2.9	5.8	6.3
	LG유플러스	14,650	5.7	12.3	12.9	0.9	1.0	0.6	0.7	3.1	3.2	3.7	3.6	9.0	9.5
미국	AT&T	30.0	214.3	171.2	165.1	33.4	33.7	22.9	22.6	53.3	52.7	7.5	7.6	12.7	11.7
	Verizon	56.9	235.6	133.7	136.5	31.6	32.8	20.9	21.4	48.6	50.0	7.9	7.7	28.1	25.3
	T-Mobile	136.1	169.6	79.5	81.6	7.1	9.5	3.1	4.4	27.1	28.1	9.0	8.7	4.9	6.0
일본	NTT	2,895	103.6	108.2	110.1	15.1	15.7	8.4	10.0	29.0	29.7	6.1	6.0	10.8	13.6
	KDDI	3,705	78.3	48.5	49.2	9.6	9.6	6.0	6.1	16.3	16.3	5.4	5.4	14.5	13.6
	Softbank	8,505	134.5	50.8	53.8	49.7	10.7	31.9	8.4	49.9	32.7	5.4	8.3	39.3	10.4
중국	China Mobile	49.9	131.5	124.9	130.4	18.6	19.1	17.4	18.1	45.3	46.6	1.6	1.6	9.5	9.4
	China Unicom	4.3	16.7	49.7	52.3	2.1	2.4	2.2	2.5	15.2	15.9	0.9	0.9	4.3	4.8
	China Telecom	2.6	26.6	64.2	66.9	4.9	5.1	3.5	3.8	19.3	19.9	1.9	1.8	6.1	6.3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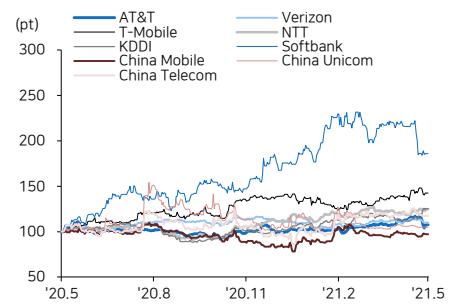
5 주요 차트

최근 1년 국내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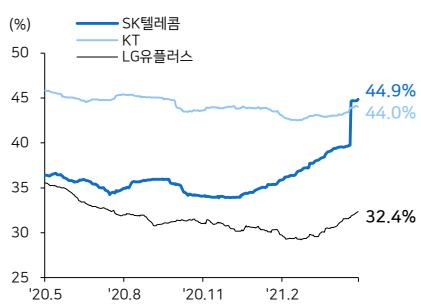
자료: WiseFn

최근 1년 해외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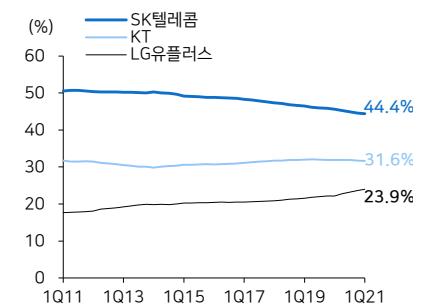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통신 3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자료: WiseFn

통신 3사 이동전화 점유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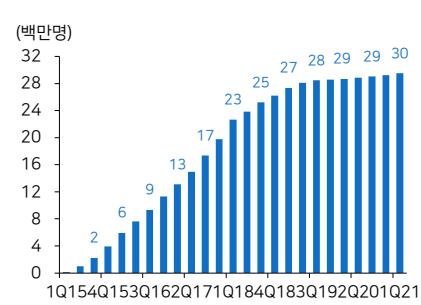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5G 가입자 및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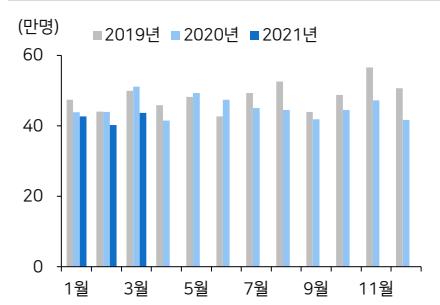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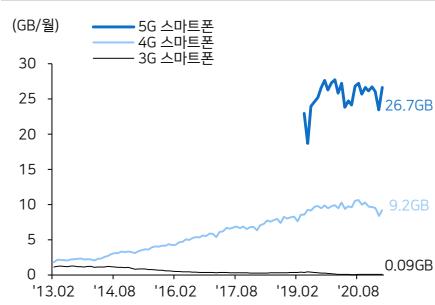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번호이동시장(MNP)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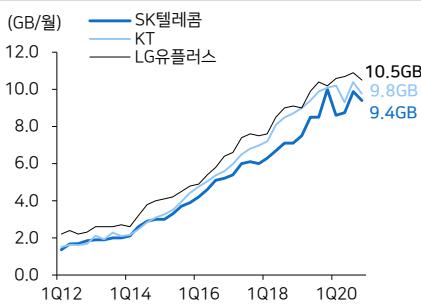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전화 단말기별 트래픽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LTE 가입자 데이터 사용량



자료: 각 사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히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